

2020국어
수능특강

적용학습 사회 1. 법의 적용 - 사용설명서 완벽 암기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따르는데,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삼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原告)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被告)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이른바 청구의 인낙(認諾)*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辯論)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審理)*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부인

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立證)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心證)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推定)하거나 의제(擬制)하기도 한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인데,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胎兒)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1.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2.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을 따른다.

3. 법의 적용은 ()을/를 대전제로 하고 ()을/를 소전제로 하여 ()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4. 소송을 제기한 측을 ()라 하고 소송을 당한 측을 ()라 한다.

5. 현실적으로 삼단 논법을 간단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 경우이다.

6.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에 기초하여야 한다.

7.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가 ()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8.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9.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10.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럴 경우 결론은 ()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11.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에는 (), (), ()이 있다.

12.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다.

13.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다.

14.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에 해당한다.

15. ()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16. ()을 한 경우와 ()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17.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에 이르게 된다.

18.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 일이고, 때로는 ()한 경우도 있다.

19.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하거나 ()하기도 한다.

20.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로 가정하여 ()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1.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으로 처리하여 ()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22. ()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될 수도 있지만 ()는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23. 법의 적용

삼단 논법		법의 적용 사례
대전제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전제	㉡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
결론	㉢	㉢ _____ _____ _____ _____

24.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입증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

부인	부지	침묵
() 고 주장하는 태도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 고 하는 태도	아무런 () 태도
원고가 ()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을 해야 함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되면 ()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짐

25.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

추정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불이익을 받는 자가 ()를 입증하면 ()될 수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한 효과를 주는 일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

[서술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따르는데,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삼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原告)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被告)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에는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이른바 청구의 인낙(認諾)*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辯論)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審理)*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心證)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

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推定)하거나 의제(擬制)하기도 한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인데,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胎兒)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적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1. 법의 목적과 개념을 설명하시오.

2. 법의 적용시 따르는 삼단 논법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시오.

3. 법의 적용에서 삼단 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본문에서 찾아 적으라.

4. '청구의 인낙'의 개념을 설명하라.

8. 의제의 개념을 서술하여라.

5. 청구의 인낙이 이루어지거나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원고가 승소를 하지 못하는 예외의 경우를 서술하시오.

9. 의제가 반증으로 반복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여라.

6.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세 가지 서술하여라.

10. 추정이 반복되는 조건을 서술하여라.

7. 추정의 개념을 서술하여라.

[읽어 읽기 문제]

1. 법은 개인이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

2. 법의 행동적 목표는 평화로운 공존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

3. 법이 근거하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 (○,×)

4.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평화로운 공존 조건은 깨지게 된다. (○,×)

5.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손해를 받은 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6. 행위자가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불법 행위의 손해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7.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

8. 가해 행위가 인격을 침해했으나 신체, 재산 등에는 상관이 없을 때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9.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나타난다. (○,×)

10. A가 불법행위를 통해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A는 B에게 과실 치상죄만 묻고 민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 (○,×)

1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책임을 진다. (○,×)

12.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13. 이 글의 주제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지문 확인 문제]

1. <답> 바른 질서의 실현
2. <답> 삼단 논법
3. 추상적인 법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판결
4. 원고, 피고
5.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6. 증거
7. 증거, 조사
8. 청구의 인락
9. 쌍방 간의 다툼
10. 원고
11. 부인, 부지, 침묵
12. 부인(否認)
13. 부지(不知)
14. 침묵(沈默)
15. 침묵, 자백
16. 부인, 부지
17. 심증(心證), 판결
18. 쉽지 않은, 불가능한
19. 추정, 의제
20. 진실, 법적 효과
21. 동일한 것, 동일한 효과

22. 추정, 의제

23.

- ㉠ 추상적인 법규
- ㉡ 구체적인 사실 관계
- ㉢ 판결
- ㉣ '을'은 '갑'에게 자전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4.

그러한 사실이 없다 / 잘 모르겠다 / 말도 하지 않는 증거, 입증 / 자백

25.

진실 / 반대 사실 관계, 반복 동일, 동일 / 반복되지 않음

[서술형 문제]

1. <답>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2. <답>

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구성된다. 대전제는 추상적인 법규이며 소전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이다. 결론은 판결이다.

3. <답>

소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4. <답>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5. <답>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6. <답>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7. <답>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답>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9. <답>

실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10. <답>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번복될 수 있다.

13. <답>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 배상의 책임의 발생 요건과 불법 행위를 통해 본 민법과 형법의 차이

[역어 읽기 문제]

1. <답> ×

2. <답> ×

3. <답> ○

4. <답> ○

5. <답> ×

6. <답> ○

7. <답> ○

8. <답> ×

- 인격, 신체, 재산 등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해야 그것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인격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

9. <답> ×

10. <답> ×

11. <답> ×

12. <답> ○